

# 단통법 폐지 열흘...이통사 보조금 경쟁은 '잠잠'

## ECONOMY

2025년 8월 4일 월요일

###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 이름만 바뀌 체감 못해 초반 눈치싸움...일부 판매점은 지원수수료 높여

“단통법 폐지돼서 많은 보조금을 기대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11년 만에 ‘단말기유동통신서비스(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공시지원금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지만 보조금 경쟁은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15만2411건으로, 일평균 약 1만5000건 수준이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인 지난 4월 초중순(일평균 7000~1만건)과 비교하면 최대 2배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해킹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집중됐던 5~

6월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변화는 아니다. 소비자들 사이 통신사를 바꿀 만큼 실질적인 가격 이점을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기대감을 품고 방문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초반 이통사들의 눈치싸움에 막상 눈에 띄는 할인 혜택은 드물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김기영씨(70)는 “사전에약으로 플립7을 사려고 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은 따로 없어 원래 사려고 했던 가격대로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들은 단통법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 큰 동요가 없는 것은 우선 달라진 유통 구조 때문이다.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해도 이통 3사의 오프라인 매장이 주 유통망이었지만, 최근엔 지급제본과 알뜰폰 조합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지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32.6%로, 단말기 3대 중 1대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발표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6.85%에서 올해 5월 17.47%로 늘어 LG유플러스(19.45%)와 격차도 약 2%p 좁혀졌다.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현금성 지원금 경쟁은 줄고 카드 제휴·멤버십 할인·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분산돼 소비자 체감도 역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원래 있던 혜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돌아간다”며 “사실상 공시지원금의 이름이 공통지원금으로 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판매점의 경우는 추가지원금을 이용해 더 싸게 해준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기준에 불만이었던 추가지원금은 휴대폰 판매 시 판매점에서 받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다시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판

매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를 통해 한 매장에서는 출고가 148만5000원인 갤럭시 Z 플립7(256GB)을 약 5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10만9000원의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판매점 관계자는 “박리다매로 파는 경우는 수수료를 조금만 받고 추가지원금을 높게 설정해 상대적으로 싸게 팔 수 있다”며 “원래 불만으로 추가지원금을 이용한 매장이 존재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합법이 됐을 뿐 소비자한테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다”고 말했다.

이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임재용 인터넷기자 djawody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광주 436명·전남 1043명

### 전국 누적 3만2185명...40대 이하 청년층 집중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난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 2185명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누적 피해자 수는 1506명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현황을 보면 광주 463건, 전남 1043건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많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 8957건, 70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보면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7.47%로 최대였다. 세부적으로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370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1억원 이하(1만3458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4210건)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9%),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순이며, 아파트도 14.1%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집중됐다. 이들의 총 합은 전체 피해자의 75.4%(2만4270건)에 달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무상임대도 제공하거나 차익을 돌려주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촌에서 놀기 보내기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산구 용곡동 '소울팍' 체험농장에서 도시민 30여명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에서 놀자'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농촌에서 놀기 보내기'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했다.

## 광주은행, 'TenTen명중' 외화정기예금 특판

### 10월 31일까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1000만 달러 한도...최고 연 0.40%p 우대금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은행 TenTen양궁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TenTen명중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화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고 연 0.40%p(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다양한 환율, 수수료 우대를 담은 특판 외화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였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가입금액은 미화 1000달러 이상,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총 판매 한도는 미화 1000만 달러이다.

6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 연 3.84%(8월 1일 기준)에 우대금리 최고 연 0.40%p를 더해 최고 연 4.24%를 제공하며, 12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 연 3.70%에 우대금리 최고 연 0.40%p를 더해 최고 연 4.10%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양궁대회 유치 기념 가입 고객 전체 연 0.10%p, 비대면채널(스마트뱅킹/모바일) 가입 시 연 0.10%p, 원화를 미화(USD)로 전액

환전해 가입 시 연 0.20%p가 있다.

여기에 예금 신규 또는 만기 해지 시 환율 스프레드 50% 우대는 물론, 만기 해지 금액을 해지 당일 해외송금 시 송금 수수료 5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은 물론 광주와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TenTen명중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마련했다"며 "비대면채널 가입 시 우대금리 제공 뿐만 아니라 환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출시했으니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 광양경제청, 日 드론기업 리베라웨어와 협력 논의

### 광양만권 투자 환경 청취...고흥 드론센터 방문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일본의 드론 전문 기업인 리베라웨어의 김태홍 한국지사장이 광양경제청을 방문해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광양경제청이 일대에서 진행한 투자유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시 체결된 업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광양경제청은 김 지사장에게 고흥 드론센터 방문과 함께 국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연찬기업 소개 등 다양한 일정을 지원했다.

이번 접견은 일본 기업의 광양만권 방문 자체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

준 철강·화학 중심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드론산업 분야로의 산업 지형 다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리베라웨어와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고, 고흥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드론 인프라와 연계한 투자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금속가공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드론 및 로봇 산업과의 융복합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며 "앞으로도 유망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jjin@gwangnam.co.kr

## 광주김치, 현대백화점 본점서 7일까지 팝업스토어

### 대통령상 수상 김치 등 프리미엄시장 겨냥 1인용·캠핑용 김치 등 라이프 스타일 반영

광주시는 오는 7일까지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광주김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된 첫 '광주김치 팝업스토어'의 성과에 힘입어 기획된 후속 행사로, 프리미엄 백화점의 핵심 소비자층을 겨냥해 광주김치의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곡은주 광주김치축합법인인이 참여한 정통 전라도식 프리미엄

광주김치를 선보인다. 특히 1인용 소포장 김치, 캠핑용 김치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제품 구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광주김치의 시장성과 상품성을 검증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백화점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광주김치는 물론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판로 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된 첫 팝업스토어에서는 '김치 팝업'이라는 신선한 콘셉트로,



광주김치뿐만 아니라 김치 응용요리, 광주김치 굿즈, 대통령상 수상 작품, 소상공인 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주최의 경제창업국장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광주김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

**로또 4 15 17 23 27 36**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0억7000만원**

제118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15, 17, 23, 27,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0억7337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2명으로 각 48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623명으로 12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0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8만548명이다. 연행뉴스